

나주대학 여자야구단



스포츠 포커스

치고 ... 던지고 ... 달리고 ...

못 말리는 男 다른 열정

화요일인 지난 25일 나주체육공원. 하나, 둘, 셋, 넷 힘찬 구령 소리에 맞춰 야구선수 13명이 운동장을 돌고 있다.

몸 풀기가 끝나자 곧바로 타격연습에 들어간다. '깡' 알루미늄 배트에 부딪히는 과일용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지만 공은 투수 앞을 벗어나지 못한다.

감독의 호통이 매섭다. 감독은 전국에서 '그냥 야구가 좋아' 모여 든 열혈 야구팬들이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구성도 다양하다 못해 특이하다.

52세 주부에서부터 39세 직장인, 20살 대학 새내기까지 연령층도 천차만별이다.

경력은 더욱 별나다. 대표선수 김수미(22·외아수), 사진작가 김여름(23·투수), 농구선수 이우영(26·투수·주루수), 경호원 출신 이민정(24·투수), 주부 박정옥(52·내야수)씨 등.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소유한 이들에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야구를 좋아하는...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소유한 이들에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야구를 좋아하는...

선수단, 20세 새내기부터 52세 주부까지 '천차 만별'

올 전국 춘계대회 우승-"조만간 세계제패 기대하세요"

아하고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 야구 입문기도 독특하다.

주장인 이유영씨와 투수 이민정씨는 자매 사이다.

인친의 딸만 넷인 딸 부자집에서 셋째와 막내로 태어난 이들은 언니 이유영씨가 신문에 난 여자 야구단 창단 기사를 보고 민정씨에게 입단을 권유했다.

초기에는 부모님의 반대로 심했지만 이제 열성팬이 됐다고 한다.

뜰째 언니는 이종격투기 선수란다.

또 팀에서 가장 맏언니인 주부 박정옥씨의 야구 입문기도 유별나다.

완도가 고양인 박씨는 지난 82년 국내 프로야구 창단부터 열렬한 해태 타이거즈의 팬이었다.

우연히 85년 부산으로 시집을 가게 된 박씨는 롯데팬인 남편과 선의의 응원 경쟁을 하며 프로야구에 폭 빠져들었다.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자 야구를 할 곳이 있어야죠"

박씨는 2005년 봄 언론을 통해 여자야구 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산여자 빈 클럽'이란 사회인 야구단을 찾았다.

하지만 1주일만에 한번씩 연습하는 '찝찝 야구'에 갈증을 느꼈던 그는 우연히 나주대에...

서 야구팀을 창단한다는 소식에 무조건 짐을 꾸렸다.

"당시 머릿속엔 그 곳에 가면 매일 야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찬성했지요. 열심히 해서 여자팀 하나 창단할래요"

이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모여 팀을 이루다 보니 야구에 대한 열정은 넘쳐 나지만 실력은 아직까지 '글썽'이다

그래도 특유의 패기로 지난 3월 국내 여자 야구 사상 첫 공식 개최된 제1회 2006년 전국 춘계 여자야구 대회에서 6개팀 중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팀 에이스 이유영은 최고 구속 100km/h의 '강속구'를 뿌려대고 김여름도 직구와 슬라이더가 일품이라는 게 감독의 주장이다.

여자 야구지만 운동장의 크기와 일반물은 남자야구와 모두 같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여자야구에선 아직 훈련이 없다.

타내 투수가 우타자인 이민정 선수의 목표는 그래서 첫 홈런이다.

이들의 희망은 이처럼 모두 담차지만 야구를 제대로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게 이들을 힘들게 한다.

나주대 야구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5시까지 하루 4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높은 타격과 수비 연습을 병행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훈련량은 이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야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가속사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연습장인 나주 체육공원으로 가기 위해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결국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에 맞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학교의 지원도 없어 변변한 야구장비 하나 없다.

그나마 일부 장비를 의상으로 구입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감독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고교 야구인 출신인 이경훈 나주대 감독은 "창단을 꾀지만 선수들의 의욕이 너무 강해 조만간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위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창단한 나주대 야구단의 이경훈 감독을 비롯, 김용신 코치 및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경훈(감독), 박정희(내야수), 이유영(투수), 김여름(투수), 정이슬(외야수), 박형욱(내야수), 이민정(투수), 조혜미(내야수), 이오영(포수), 김혜정(내야수), 김용신(코치).

한국 여자야구단 어떻게 커왔나

한국 여자야구의 역사는 짧다. 한국 여자야구는 지난 2004년 3월 '비밀리에'가 창단되면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여자 사회인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안향미씨가 감독 겸 선수로 합류해 팀을 갖췄다.

같은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제 4회 세계여자야구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했으나 홍콩전 0대 53, 일본전 0대 27 등 처참한 스코어로 무너졌다.

이후 '나인빅스', 부산산, 훌릭스, 올인, 대구 로얄 페리미, 광주 소원 야구단 등 모두 11개 여자야구팀이 태어났다.

2005년 4월에는 '대한민국 여자야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됐고 올 1월 나주대학이 전국 대학 사상 처음으로 여자야구단을 창단했다.

현재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 지방협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부산에서 제 1회 춘계전국 여자야구대회가 개최됐고 오는 5월에는 화순에서 협회창립 전국 여자야구대회도 계획되고 있다.

한국 여자야구의 역사는 짧다.

한국 여자야구는 지난 2004년 3월 '비밀리에'가 창단되면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여자 사회인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안향미씨가 감독 겸 선수로 합류해 팀을 갖췄다.

같은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제 4회 세계여자야구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했으나 홍콩전 0대 53, 일본전 0대 27 등 처참한 스코어로 무너졌다.

이후 '나인빅스', 부산산, 훌릭스, 올인, 대구 로얄 페리미, 광주 소원 야구단 등 모두 11개 여자야구팀이 태어났다.

2005년 4월에는 '대한민국 여자야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됐고 올 1월 나주대학이 전국 대학 사상 처음으로 여자야구단을 창단했다.

현재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 지방협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부산에서 제 1회 춘계전국 여자야구대회가 개최됐고 오는 5월에는 화순에서 협회창립 전국 여자야구대회도 계획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사랑방 프랜차이즈' (Love House Franchise) featuring a grid of 50 franchise unit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ddresses. The main text highlights '국내산 최고급 생삼겹살 전문' (Specialty in high-quality domestic raw pork belly) and a price of '3,800' per 200g serving.